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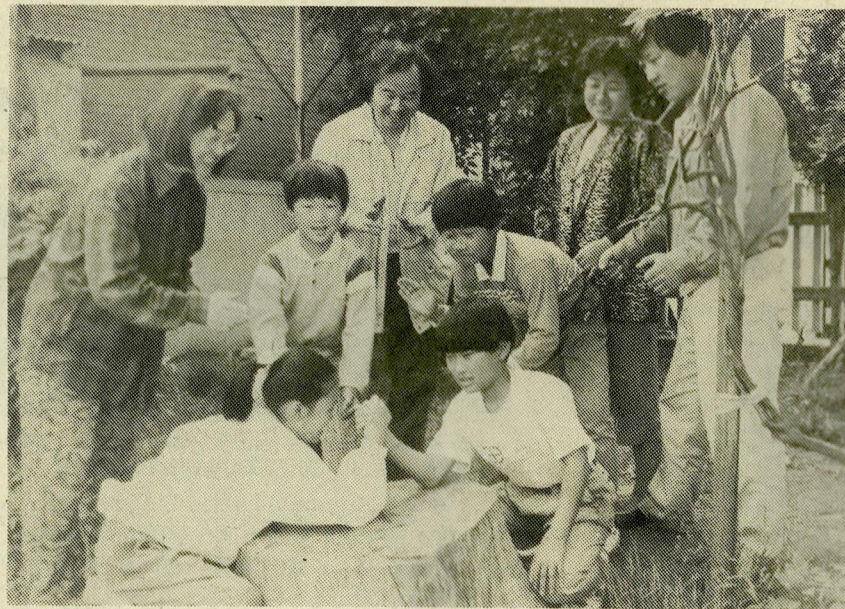
더불어 사는 사람 되라

일곱 집이 생활공동체 이뤄

우리집 가정교육
소신껏 키운다

<8>

여자축구선수가 꿈인 아람(앞줄 왼쪽)이와 과학 선생님이 되고 싶다는 세훈(앞줄 오른쪽)이는 태어나기 전부터 친구인 열세살 동갑나기로 공동체 아이들 16명의 맘이 노릇을 썩 잘 해내고 있다.



열여섯 어린이가 한 형제처럼

의정부에 살고 있는 장유수(43·구두 디자인)씨와 최상환(41·표구사)씨네는 '더불어 사는 사람'을 공동가훈으로 삼고 세훈(13)·세민(12) 형제와 아람(13)·우람(11) 남매를 '내 자식이 아닌 우리 아이'로 키우는 소신과 가정이다.

"텔레비전을 아예 없애고 전자오락실에 못 가게 했더니 아이들이 남의 집을 전전하는 바람에 애를 먹었습니다. 온통 오염된 환경 속에서 내 아이 하나만 잘 키우기가 어렵다는 사실을 깨달았지요."

짧은 학벌에 가진 것도 별로 없는 진짜 보통사람들임을 자처하는 이들이 이같은 깨달음을 소신으로 굳히게 된 것은 생활공동체운동 모임인 '마당'을 통해서이다.

마당공동체는 5년전 이들과 비

슷한 갈등을 겪고 있던 친구부부 일곱쌍이 만든 모임으로, 처음에는 합성세제 안쓰기·화학조미료 안먹기·수입제품 안사기 등 일상에서 쉽게 할 수 있는 일부터 찾아 실천했고 매달 모임이 거듭되면서 부부싸움도 공개적으로 할 만큼 친숙해졌지만 우람이가 유치원에 갈 나이가 되자, 이들은 처음으로 갈등을 느끼게 됐다.

"보내느냐 마느냐 밤을 새우며 격론을 벌였지만 합의가 안돼 결국 각자 판단에 맡기기로 했지요."

우람이 어머니 김춘옥(37)씨는 입학원서를 두번이나 샀다가 결국 찢어버린 자신의 결단을 이제

는 "잘했다"고 생각한다.

유치원에 가지 않았어도 전혀 기죽지 않고 밝게 자라 할아버지 때부터 해온 표구점을 대물림하겠다는 우람이가 그저 고맙고 신통할 뿐이다.

'유치원 파동'을 계기로 교육문제가 공동체의 주요 과제로 떠올라 지난해에는 전교조를 후원하는 의정부 참교육학부모협의회에 적극 참여하게 됐다.

지난 겨울방학에는 공동체 아이들 가운데 가장 맏이인 아람이와 세훈이의 6학년 진급을 앞두고 또 한차례 흥역을 치렀다. 5학년 때부터 서울로 유학가는 아

이들로 인해 3분의 1 이상 자리가 줄어들리는 의정부의 교육현실이 특히 두 어머니의 마음을 흔들리게 했던 것이다.

서울로 친정나들이를 갔던 세훈이 어머니 이문자(39)씨는 뒤

든지 잘하고 한결같이 1등인 것처럼 보이는 아이들을 대역섯 군데 학원에까지 보내는 강남에 사는 친구들이 "시골에 박혀있지 말고 서울로 나오라"고 부추기자 내심 자존심이 상하면서도 서울로 옮길 계획을 세웠었다.

"그렇게까지 극성을 피울 필요가 없다고 믿으면서도 나중에 아이가 원망하지 않을까 불안했어요. 막상 떠나지 않기로 결심을

하고 나니 이제는 마음이 예전보다 편해졌어요."

우람이 어머니 뿐 아니라 공동체 가족 모두가 이처럼 의정부 토박이가 되기로 결심한 결정적인 이유는 다름아닌 아이들의 열렬한 희망 때문이었다.

"가르쳐주지 않았는데도 16명이 서로 형과 동생으로 여겨요. 장난감이나 동화책을 돌려보고, 맛있는 음식을 보면 갖다주자고 하고, 어디를 갈 때면 당연히 같이 가는 것으로 알지요."

어느새 사랑과 나눔을 통해 끈끈한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아이들을 떼어놓으면 오히려 상처를 줄 것 같았다는 최상환씨의 느낌은 아람이의 일기에서 그대로 확인된다.

"세훈이는 맨날 만화만 봐서 큰일이다..." "내 동생은 열네명이나 된다" "올해도 키타리아저씨네 모내기를 가면 좋겠다..." "공동체에서 풍물놀이 대회에 나갔다. 내가 어린이 상쇠를 맡고 우람이는 북, 단비는 장구, 세훈이는 징을 치며 빙빙 돌았다..."

아람이의 공동체 일기는 앞으로 '내 자식만큼을 잘 돼야 한다'는 우리 사회의 가족이기주의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을 계속 그려갈 것이다.

<의정부=김경애 기자>